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	
배포일자		2022년 12월 30일(금) 총 3매			
담당 부서	보건의료정책과	담당자	• 보건정책팀장 김순심 ☎440-2711 • 담당자 윤신원 ☎440-2712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인천 조성
-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 및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 구축 -
- 행복한 삶의 시작, 건강도시 구현 및 위생안전 수준 제고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‘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인천’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건강보건국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올해 건강보건국에서는 ▲ 민·관협력 도서지역 무료진료 사업 확대 ▲ 의료급여 재정관리 전국 우수 기관 2년 연속 선정 ▲ 공공심야 약국 전국 최대 규모 지정 ▲ ’22년 문화체육관광부 ‘의료관광클러스터’ 사업 공모 전국 1위 ▲ 감염병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▲ 2년 연속 자살 예방관리 및 치매예방관리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▲ ‘22년 음식문화 개선사업 대통령상 수상 ▲ 2년 연속 식품안전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야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.

특히,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(이용자 410명 대

상, 12개 항목) 결과 ‘의약품 구매 만족도’에서 긍정적 평가가 100%로 나오는 등 “매우 우수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2023년에는 “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인천” 조성을 목표로 ▲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▲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 ▲행복한 삶의 시작,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 ▲시민이 더 건강해지는 위생안전 수준 제고 등 4개 추진전략과 19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.

건강보건국의 첫 번째 전략과제인 「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」을 위해서는 제2의료원과 인천 국립대병원 분원 설립 등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의 보편적 의료이용권 보장한다.

두 번째, 「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 만들기」는 즉각 대응이 가능한 감염병 치료 체계를 구축해 국가 보건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촘촘한 결핵관리 사업 추진으로 국가 2030 결핵퇴치 목표 달성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.

세 번째, 「행복한 삶의 시작, 안전한 건강도시 만들기」는 지역기반 건강증진 플랫폼 등록관리 및 AI·IoT 기술을 활용한 방문건강관리 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욕구를 충족시키고 취약계층의 서비스를 강화한다.

마지막 네 번째, 전략과제인 「시민이 더 건강해지는 위생 수준 제고」를 위해 시민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안

심식당 확대 및 위생관리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음식점 육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.

유정복 시장은 “시민의 건강은 행복과 직결된 것으로, 제2의료원 설립, 국립대병원 유치 등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.” 면서, “특히, 섬 지역에 최소한의 의료보장체계를 갖추는 등 인천 내 보건의료체계가 취약한 지역에 적극적인 지원과 보건의료 취약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. 코로나19로 건강의 중요성을 온 시민이 절실히 인식한 만큼 2023년도에는 시민이 행복한 건강 도시 인천 만들기에 더욱 총력을 다 할 것이다.” 라고 밝혔다.

※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
<참고> 2023년 건강보건국 주요업무계획(별첨)